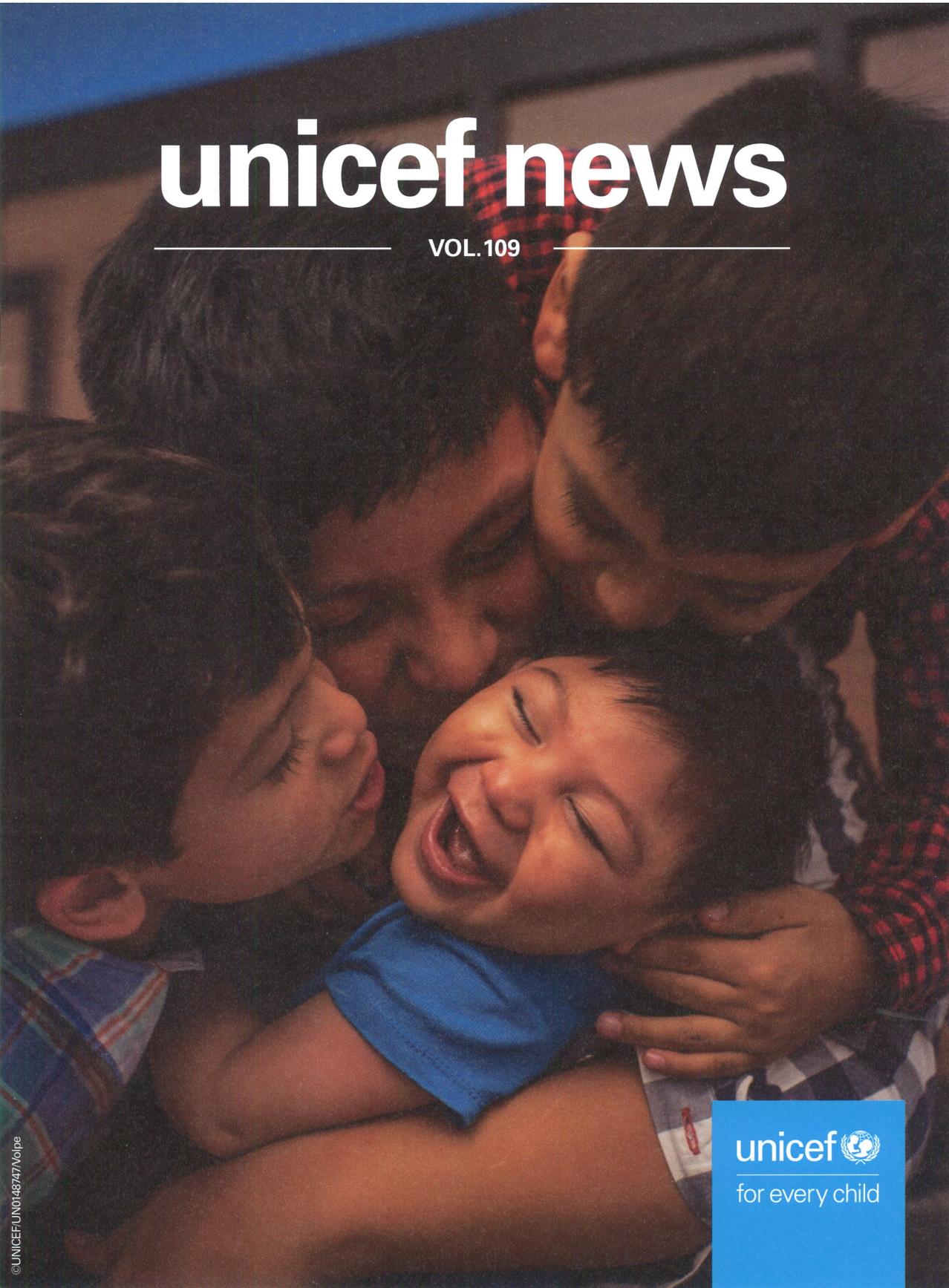


# unicef news

VOL. 109

unicef  
for every child



# unicef news

| VOL.109

unicef news 109호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003** 클로즈업

for every child #EDUCATION

**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제네바에 가다

**006** 세계는 지금

- 예방접종 백신 싣고 드론이 간다
- 시리아 어린이 위해 최대 규모 구호물품 전달
- 차드 호수 지역 어린이에게 불어닥친 교육 위기

**010** 유니세프 포토툰

정글북 모글리의 수상한 상자

**012** 딩동 편지 왔어요

- 겨울 키트야, 고마워
- 어린이친화공간에서 장난감을 만들어요!

**014** 현장 속으로

- 벨기에 왕비와 함께한 유니세프 청소년 간담회
- 배우 구혜선과 함께한 후원자 토크 콘서트

**018** 유니세프가 만난 사람

전화 한 통에 울고 웃어요

**020** 뉴스 브리핑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금

**022** 함께해요

당신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희망  
UNICEF HOPE RING

**023** 재정 보고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쓰였습니다



소두증을 앓는 동생에게  
입맞춤하는 형제들  
(고테말라)  
© UNICEF/UN0148747/Volpe

발행정보 2019년(통권 109호)

발행일 4월 26일

발행인 겸 편집인 송상현

발행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60

전화 02-737-1004

웹사이트 [www.unicef.or.kr](http://www.unicef.or.kr)

이메일 [com@unicef.or.kr](mailto:com@unicef.or.kr)

기획·디자인 에이치씨



# 벨기에 마틸드 왕비와 함께한 유니세프 청소년 간담회

숨 막히는 미세먼지

서로 책임 미루는 어른들 탓이에요



- 1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국 청소년과 마틸드 왕비
  - 2 환영사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
  - 3 창작 뮤지컬 〈마루의 파란 하늘〉 공연을 하는 청소년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 맑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보호해야

지난 3월 27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남의 주인공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벨기에 마틸드 왕비와 28명의 한국 청소년, 보이 그룹 NCT 멤버인 재민입니다. 국적도 나이도 다른 이들이 왜 한자리에 모였나고요? 어린이가 뿐만 아니라 탁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유니세프벨기에위원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마틸드 왕비는 평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권리 실현을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이날 마틸드 왕비와 청소년들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극단 ‘날리는 자동차’의 어린이 창작뮤지컬 ‘마루의 파란 하늘’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뮤지컬은 미세먼지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비닐과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주부는 과학자를, 환경보호 제품 개발에 게으른 과학자는 기업을, 이윤창출만을 죄는 기업은 무능한 정부를 탓하며 어린이들을 실망시키는데요. 어른들이 어린이가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숨 쉬고 뛰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은 “매년 대기오염으로 전 세계 어린이 60만 명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다”고 지적하면

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유니세프벨기에위원회 명예회장 마틸드 왕비 어린이 참여 중요성 역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할 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며 “어린이는 밖에 나가 놀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면 귀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다 고도 토로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마틸드 왕비는 “전 세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린이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아무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일상 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평소에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한 청소년은 “큰 건 아니지만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은 “환경 위기가 현재와 미래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전 세계에 한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리”고 당부했습니다.

마틸드 왕비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한국 청소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왕비는 또 “앞으로 세계 곳곳에 한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금



2018. 12.

- 워너원과 함께 #WannaOneForEveryChild 캠페인
- 정광사, 영양 기금 1천만 원 기부
- 벨레다교회,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기금 1천만 원 기부
- 제17회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18 부산국제아트페어
- 2018년 제4회 유니세프 송년 감사의 밤
- 은행연합회, 알제리 어린이 기금 5천만 원 기부

###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 아프리카 남부 3개국 10만 달러 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를 위해 기금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나라는 지난 3월 14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니세프는 피해 지역 어린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 시설을 마련합니다. 영양실조 어린이에게 치료식을 공급하고 콜레라를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어린이 교육 사업도 지원합니다.

### 2018년 제4회 유니세프 송년 감사의 밤



2018년 12월 20일 유니세프아트센터에서 '제4회 유니세프 송년 감사의 밤'이 열렸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0년째 함께해온 정기 후원자와 후원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1,000명을 초대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와 '영주시'는 '2018 올해의 파트너'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2019. 2.

- 금당남부교회, 영양·위생 개선 기금 1천만 원 기부
-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의회 워크숍

### 워너원과 함께 #WannaOneForEveryChild 캠페인



2018년 12월 1일부터 2주 간 보이 그룹 워너원은 정규앨범 '111=1(POWER OF DESTINY)' 발표에 맞춰 특별 캠페인 '#WannaOneForEveryChild'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으로 모인 방한 담요 8,070개 상당 기금은 12월 21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됐습니다. 워너원은 "방한 담요가 어린이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의회 워크숍



2019년 2월 20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의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채택된 의견은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올려져 실행 가능성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2019. 3.

- 배우 구혜선과 함께하는 후원자 토크 콘서트(P.16~17)
-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 입은 말라위 등 3개국 위해 10만 달러 지원
-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행운의 동전' 전달
- 벨기에에 왕비와 함께한 유니세프 청소년 간담회(P.14~15)